

에너지 시장 신

양해각서를 맺는 등 '한국형 원자력기 술'은 해외에서 주목받아 왔다.

국내도 하이브리드카 시대 개막

현대 내달 환경부에 클릭 50대 공급

외국에서 이미 상용화돼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카가 본격 공급되면서 국내에서도 새로운 저공해차 시대를 이끌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실제 도로 주행용으로는 국내 첫 하이브리드 차량인 클릭 하이브리드카 생산을 이달 중순부터 착수, 10월 중 50대를 환경부에 관용 차량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경쟁력 제고에 나서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하이브리드카 양산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저공해차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10년까지는 연료전지차 양산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에 나오는 현대차의 클릭 하이브리드는 1리터당 주행거리가 16.8km로 현재 시판 중인 가솔린 모델보다는 월신 우수하지만 아직 외국차량에 비해서는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기 및 휘발유 겸용의 하이브리드카가 본격 나올 경우 그동안 실제 보급 가능한 유일한 친환경차로 평가 받았던 LPG 및 CNG차량의 위상변화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관련업계는 소형자동차의 경우 당분간 하이브리드카가 더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스분야에서도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자동차 제작사와의 R&D연계 등을 통해 저공해 가스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이브리드카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통해 구동하는 방식을 겸용하는 자동차로서 뛰어난 연비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도 대폭 줄인 친환경 자동차. 외국의 경우 일본의 토요타, 닛산, 혼다와 미국의 GM사 등에서 이미 3~5년전에 양산차량을 제작, 판매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연비와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연간 수만대 이상 판매되고 있다.

부산 영도에 풍력발전단지 조성될까

부산 영도구가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도구는 바람의 세기가 강한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5곳을 선정, 풍력발전에 필요한 풍속과 각종 환경적 요인, 경제적 측면 등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도발전연구소 조정환 교수(고신대)가 맡았으며 풍력발전 가능지역과 경제성을 검토해 11월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풍력발전 시범지인

제주에 20~600kW급 풍력발전기가 가동중이며 강원도 대관령과 전라북도 새만금지역에 풍력단지 조성이 계획되고 있다. 풍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은 바람의 세기가 평균 초당 4m 이상의 지역인데 기상청이 측정한 결과 부산지역의 바람세기는 평균 풍속이 초당 3.4m로 나타났다. 영도구 관계자는 "영도는 시내보다 지형적으로 바람이 강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며 "중대형 풍력발전기가 가동된다면 낮은 구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태종대 유원지와 더불어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LNG직도입 2라운드

한전의 발전5사가 발전용 LNG를 직도입할 경우 최소 500만톤 이상이 돼야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한전의 발전5개사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LNG요금구조 개선 및 LNG직도입 경제성 분석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연간 600만톤을 모두 직접 도입하는 경우에는 원료비 인하효과가 총 5382억원, 여기에 공급비용 인하효과 162억원을 포함해 종합효과가 55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발전용 LNG를 연간 300만톤을 도입할 경우 천연가스 조달비용 인하 종합효과가 2516억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도입시 경제규모는 연간 도입량이 500만톤 이상이 돼야 하며 이 규모는 최근에 신규로 추진되는 LNG플랜트 1트레인의 규모가 점차 460만톤/년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고 연간 발전용 LNG 수요 규모와도 비슷하고 인수기지 규모도 가스공사의 인수기지와 경쟁할 만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전회사 관계자는 "포스코를 제외하고 LG파워나 케이파워는 IPP로 공급권역이 겹치는 부산복합화력, 울산화력 등을 가동을 하더라도 직도입 민자발전사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 다"고 밝혔다.

반면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전력산업을 감안한 것으로 가스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많다"며 "발전회사가 LNG를 직도입할 경우 반대로 그동안 낮은 가격을 유지해왔던 도시가스 요금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발전사업자의 직도입 효과는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그 효과는 전이되지 않는다'며 '만약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경우 소비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발전회사의 직도입 관련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그동안 국내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한전의 줄다리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 가스공사 노조의 반발도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발전회사는 이번 용역보고서에 대한 발표회는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이자율 인하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 금리를 4.4분기부터 0.75%포인트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지원자금이 현행 4.25%에서 3.50%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지원자금이 3%에서 2.25%로 각각 인하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로 지난 95년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출범 이후 가장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대출기업들의 이자부담액이 연간 96억원 가량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올해 계획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4천749억원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450억원을 확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와 집단에너지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

"석유사들 공급확대에 몇 년 걸린다"

국제유가가 수요 증가와 공급부문의 불안 요인으로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석유회사들이 공급을 늘리는 데는 최소한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더욱이 지난 수십년간 기존의 거대 유전의 생산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 메이저들은 아프리카 서부 해안이나 카스피해 등지에서 해저 유전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서 유전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운송 수단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에너지서비스 대전 정부가 필요합니다

국내의 에너지설비 기술동향 및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학교연자집과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에너지총설'이 있습니다.

- 매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때마다 고민하는 분!
-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
-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
- 에너지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원, 학생, 공무원 여러분들!
-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 현장 에너지관리자 여러분들!
- 기계설계사무소 여러분들!



그동안 참고하시면서 있어 고민 많으셨죠?
에너지 경제·정책·제도·기술·관리를 종합적으로
'에너지총설'이 해결해 드립니다.

Total Solutions

사회 13명의 박사 집필!

이제 우리나라에
진정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제작자: 김경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